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원활 추진”

강임준군산시장,현장에로청취
29일까지 56만 5664톤 매입 예정

강임준 군산시장이 10일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현장인 옥산농협 DSC를 방문해 농업인과 매입 관계자를 만나 농업 고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매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군산시는 지난 7일부터 건조벼 매입을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모두 5,656.64톤을 매입할 예정이며, 앞으로 피해벼 매입 수요조사를 통해 별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곡 건조벼는 800kg 또는 40kg 단위로 매입하며, 수분이 13.0~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하기 때문에 수분관리를 철저히 해 매입 현장에서 불합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군산시는 강조했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전년도와 같게 신동진, 해품 두 가지



강임준 군산시장이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현장을 방문했다.

이며, 품종 검정제를 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농가가 실제 출하한 품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산시의 품종검정 시료 채취 표본 수는 26건이며, 이 가운데 24건은 출하 농가의 5%를 무작위 추출 후 선정된 대상자이고, 2건은 지난 '18년 이후 품종검정 위반 농가 중 구제

된 농가로 필수 시료 채취 대상자이다.

채취한 시료는 검정 기관에 송부 후 검정을 하며, 결과에 따라 매입 품종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농가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강경창기자

진북연립신문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007면 지역

군산, 5656톤 매입... “농업인 노고 감사”

올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현장 방문, 농민 격려
오는29일까지매입예정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10일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현장인 옥산농협DSC를 방문해 농업인과 매입관계자를 만나 농업 고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매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군산시는 지난 7일부터 건조벼 매입을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총 5656.64톤을 매입할 예정이며, 추후 피해벼 매입 수요조사를 실시, 별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곡 건조벼는 800kg 또는 40kg 단위로 매입하며, 수분이 13.0~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하기 때문에 수분관리 철저히 매입 현장에서 불합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동진, 해품 두 가지이며, 품종 검정제를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농가가 실제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10일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현장인 옥산농협DSC를 방문해 농업인과매입관계자를 만나농업 고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매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출하한 품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의 품종검정 시료 채취 표본 수는 26건이며, 이 중 24건은 출하 농가의 5%를 무작위 추출 후 선정된 대상자고 2건은 지난 '18년 이후 품종검정 위반 농가 중 구제된 농가로 필수 시료채취 대상자다.

채취한 시료는 검정기관에 송부 후 검정을 실시하며, 검정결과 매입 품종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농가 및 동일 주소 거주하는 가족 포함해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올해 유례없는 호우로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수확에 최선을 다해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송기문 기자
jbskm@naver.com



강임준시장,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 방문

애로청취-격려

강임준 시장은 10일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현장인 옥산농협DSC를 방문해 농업인과 매입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매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군산시는 지난 7일부터 건조벼 매입을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총 5,656.64톤을 매입할 예정이며, 추후 피해벼 매입 수요조사를 실시해 별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곡 건조벼는 800kg 또는 40kg 단위로 매입하며, 수분이 13.0~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하기 때문에 수분관리

철저로 매입 현장에서 불합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동진, 해품 두 가지이며, 품종 검정제를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농가가 실제 출하한 품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올해 유례없는 호우로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수확에 최선을 다해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벼수매장 방문 농민·매입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강임준 군산시장은 10일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현장인 옥산농협DSC를 방문해 농민과 매입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건조벼 매입을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총 5천656.64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피해벼 매입 수요조사를 실시해 별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올해 유례없는 호우로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수확에 온 정성을 쏟은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방문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10일 2023년 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현장인 옥산농협DSC를 방문해 농업인과 매입 관계자를 만나 농업 고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매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군산시는 지난 7일부터 건조벼 매입을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총 5,656.64톤을 매입할 예정이며, 추후 피해벼 매입 수요조사를 실시, 별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곡 건조벼는 800kg 또는 40kg 단위로 매입하며, 수분이 13.0~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하기 때문에 수분관리 철저로 매입 현장에서 불합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동진, 해품 두 가지이며, 품종 검정제를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농가가 실제 출하한



품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의 품종검정 시료 채취 표본 수는 26건이며, 이 중 24건은 출하 농가의 5%를 무작위 추출 후 선정된 대상자고 2건은 지난 2018년 이후 품종검정 위반 농가 중 구제된 농가로 필수 시료채취 대상자다.

채취한 시료는 검정기관에 송부 후 검정을 실시하며, 검정결과 매입 품종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농가 및 동일 주소 거주하는 가족 포함해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타임스
The JoongAng Times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006면 지역

강임준 군산시장,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방문

옥산농협DSC방문, 농업 고충 의견 청취·원활한 매입 진행 격려

강임준 군산시장이 10일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현장인 옥산농협DSC를 방문해 농업인과 매입관계자를 만나 농업 고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매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군산시는 지난 7일부터 건조벼 매입을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총 5,656.64톤을 매입할 예정이며, 추후 피해벼 매입 수요조사를 실시, 별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곡 건조벼는 800kg 또는 40kg 단위로 매입하며, 수분이 13.0~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하기 때문에 수분관리 철저로 매입 현장에서 불합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동진, 해품 두 가지이며, 품종 검정제를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농가가 실제 출하한 품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의 품종검정 시료 채취 표본 수는 26건이며, 이 중 24건은 출하 농가의 5%를 무작위 추출 후 선정된 대상자고 2건은 지난 '18년 이후 품종검정 위반 농가 중 구제된 농가로 필수 시료채취 대상자다. 채취한 시료는 검정기관에 송부 후 검정을 실시하며, 검정결과 매입 품종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농가 및 동일 주소 거주하는 가족 포함해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김낙현 기자

“악조건 속 고품질 쌀 수확 노고 감사”

강임준 군산시장,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서 농민 격려

강임준 군산시장이 10일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현장인 옥산농협DSC를 방문해 농업인과 매입관계자를 만나 농업 고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매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군산시는 지난 7일부터 건조벼 매입을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총 5,656.64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추후 피해벼 매입 수요조사를 실시, 별도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곡 건조벼는 800kg 또는 40kg 단위로 매입한다. 수분이 13.0~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하기 때문에 수분관리 철저히 매입 현장에서 불합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동진, 해품 두 가지이다. 품종 검정제를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농가가 실제 출하한 품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의 품종검정 시료 채취 표본 수



는 26건이다. 이 중 24건은 출하 농가의 5%를 무작위 추출 후 선정된 대상자고, 2건은 지난 2018년 이후 품종검정 위반 농가 중 구제된 농가로 필수 시료채취 대상자다.

채취한 시료는 검정기관에 송부 후 검정을 실시한다. 검정결과 매입 품종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농가 및 동일 주소 거주하는 가족 포함해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임준 시장(사진)은 “올해 유례없는 호우로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수확에 최선을 다해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